

구락부 농민악대도 있고, 촌사도 펴내고

— 전통문화와 현대문명이 함께하는 백년 조선족 마을 서안촌



▲ 비옥한 충적평원에 논으로 둘러싸인 서안촌 전경

서안촌은 흑룡강성 해림시 신안조 선족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작지가 가장 큰 조선족 마을이다. 서안촌의 인구는 2,000 명에 육박하고 경작지는 만무가 넘는다.

마을 서쪽 입구에는 서안촌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큰 대문이 우뚝 서있고 넓직한 중심도로가 동쪽 끝까지 한일자로 곧게 뻗어있다. 이 중심도로와 교차하며 남북 방향으로 뚝뚝 뻗은 골목길들은 서로 맞물리며 바둑판처럼 네모반듯하다. 마을 중심도로 양옆으로는 도랑물이 조잘조잘 흐르고 마을 길은 하루에도 세번씩 청소해 항상 정갈한 모습이다.

촌주민 겸 당지부 서기인 최산옥에 따르면 서안촌은 서안촌과 자흥툰으로 이루어졌는데 호적에 등록된 가구 수는 706 호이고 인구는 1,625 명, 경작지는 1만 3,675 무이다. 이중에 논이 9,000 무이다. 이외 기동지가 60 헥타르에 달한다. 기동지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물도랑, 광장, 도로 등 기간 건설을 하고 있다. 주로 벼농사가 위주이고 양계, 양어, 하우스농사도 하고 있으며 로무수출 인원이 천여명에 달한다.

서안촌의 역사는 근 100 년전인 1920 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 년초에 김수산이 조선인 15 가구와 함께 서안촌으로 이주해왔다. 삶의 터전을 잡은 김수산은 마을에다 학교를 세웠고 수산학교로 불리다가 해방후에 서안촌초등학교로 명명되었다.

서안촌초등학교는 1920 년부터 2008 년까지 80 년간 끈끈한 맥을 이어으며 청화대학, 북경대학 등 국내 중점대학을 포함한 대학교들에 많은 학생을 수송했다. 당시 마을에서는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을 장려했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은 학생은 또 한달 로임을 마을에 의연해 마을 사람들의 지성에 보답했다.

근 100 년의 세월이 흐르며 이들은 고향 사투리를 거의다 잊고 현재는 함경도 방언을 구사하고 있다.

해방전쟁과 항미원조전쟁 기간에 서안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용약 참군했다. 항미원조전쟁에 참가한 사람만 76 명이고 전쟁에서 희생된 혁명렬사가 28 명이며 영예군인이 7 명이다.



▲ 마을 광장에서 즐기는 촌민들

서안촌은 문예활동을 활발히 전개한 마을로 소문이 파다하다.

기록에 의하면 1946 년 8 월 15 일, 일본 투항 일주년 기념으로 서안촌에서 운동회를 열었는데 악단의 15 명

나팔수가 나팔을 불면서 함께 개막식에 입장했다고 한다. 그리고 낮에는 운동회를 벌이고 저녁에는 널판자로 만든 무대 위에서 노래자랑을 했다고 한다.

1950 년대부터 서안촌의 문예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었는데 당시 한 사람은 연변연극단 무용배우로 뽑혀갔고 다른 한 사람은 전국소수민족문예경연대회에 참가해 모백동, 류소기, 주은래, 주덕 등 중앙경도들의 집전까지 받았다.

서안촌의 자랑찬 문화예술 역사를 실증하는 명물로 1956 년에 지은 문예구락부를 들 수 있다. 이 구락부는 면적이 800 평방미터인데 1960 년대부터 선후로 해림시문화관, 목단강시문화관과 연변연극단에서 이 구락부에 와서 공연하였다. 매년 공연단이 올 때면 관중이 너무 많아 이틀씩 공연하였다고 한다. 지금도 서안촌 문예구락부는 서안촌악대의 연습장과 공연장으로 쓰이고 있는데 흑룡강성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농촌 구락부이며 서안촌악대는 중국 조선족 농촌에서 유일무이한 농민악대이기도 하다.

서안촌에서는 2004 년도에 5,000 평방미터 되는 문화광장을 건설했는데 해마다 여름이면 촌민들이 이 광장에

서 광장무를 추고 각종 문예공연을 펼친다. 조선족 전통문화의 전승을 위해 서안촌 문화광장에는 각종 민속문화 전시물과 설명서를 갖춰놓고 촌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력사가 유구한 서안촌에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으니 바로 마을 중심거리 철탑에 매달아놓은 구리종이다. 이 구리종은 1946 년에 동북민주련군이 이 마을에 오면서 증정한 대포탄알이다. 대포탄알로 만든 이 종은 그때부터 마을의 각종 회의 때마다 울렸는데 종을 치는 차수와 박자에 따라 촌민들은 오늘 하는 회의가 무슨 회의인가를 알았다고 한다.

근년에 서안촌은 몇년간의 노력을 들여 720 만원의 자금을 마을 건설에 투입했다. 최근 3 년 사이 촌에서는

10 킬로미터의 마을길을 포장도로로 건설하고 2 만미터의 세멘트 물도랑을 수선했으며 3,000 평방미터의 레저광장을 건설하고 스크린까지 갖춘 현대풍의 공연무대를 건설하였다. 또 로인들의 문화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160 평방미터 되는 로인협회 활동실을 짓고 표준 게이트볼장 두개를 만들었다.

서안촌 주요 거리에는 신형의 태양에너지 가로등이 설치돼 있고 감시카메라까지 있어 촌민들은 안경잠을 느끼고 있으며 촌의 3,000 미터 구간에 쇠그물 바자가 둘러있다. 서안촌은 촌으로부터 진 구역 그리고 부근의 촌에 이르는 구간이 모두 포장도로로 되었다. 촌에서는 또 각 방면의 자금을 적극 쟁취해 남새하우스 39 개를 건설하였으며 대 하우스의 면적이 400 평방미터 된다.

이 마을 로인협회 최경남 회장에 따르면 마을 로인협회는 1950 년대에 몇분이 모여 독보조 형태로 출범했다. 인민공사 시기에는 로인독보조로 되었다가 지금은 마을 청장년들이 연해, 해외로 많이 진출한 관계로 35 명의 로인이 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마을 촌사를 집필한 최경남 회장은 1950 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생산대 대장, 촌민위원회 주임, 촌로인협회 회장을 거쳐 지금은 진로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그의 고심삼단한 노력과 집필을 거쳐 2020 년 5 월에 신안촌 촌사가 출간되었다. 마을의 역사를 완벽하게 집대성한 이 책은 조선족 농촌마을에서 보기 드문 촌사이기도 하다.

/ 흑룡강신문



중원절의 유래와 풍속

— 신기덕 —

매년 음력 7 월 15 일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전통 명절인 중원절(中元節)로 일명 '7 월 반'이라고도 부른다.

도교에서는 천상의 선관(仙官)이 1 년에 세번 인간의 선과 악을 매기는데 그 시기를 원(元)이라 한다. 정월 15 일은 천관의 생신날로 상원(上元)이라 하고 7 월 15 일은 지관의 생신날로 중원(中元)이라 하며 10 월 15 일은 수관의 생신날로 하원(下元)이라 하였다. 원중절에 천지의 관원들이 모여와 인간의 선과 악을 정한다는 전설이 있다. 이로 인해 천관이 복을 내리고 수관이 악을 풀어주고 지관이 죄를 사면하는 삼원절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귀절(鬼節)이라고도 불리우는 중원절은 불교의 우란분회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다. 석가모니의 제자 목련존자가 부모를 잃었는데 어머니를 특히 그리워하였다. 도를 닦고 지옥에서 어머니를 찾아보았는데 어머니는 아귀의 손에 들어가 그 고생이 말이 아니었다. 그가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어머니의 액운을 물리칠 수 없어 부처에게 가르침을 청하여 어머니를 사경에서 구해낸다. 부처는 목련의 효심에 감동되어 '불설우란분경(佛說盂蘭盆經)'을 수여했다.

목련존자와 스님들은 음력 7 월 15 일에 우란분에 오곡과 백과 등 음식물들을 담아들고 지옥의 중생들에게 가져다주면서 어머니를 구해내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불교도들은 매년 성대한 '우란분회' 즉

우리가 말하는 '귀절'을 가지게 되었다. 불교에는 원래 부처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 등 4 대 명절이 있었는데 '귀절'까지 합치어 그후부터 5 대 명절로 되었다고 한다.

중원절 풍속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등불을 강에 띄워보내기와 조상을 기리어 종이돈을 태우는 제사 일이다. 그리고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를 벌리기도 한다. 사람들은 연화등 받침대 위에 등잔이나 초불을 켜놓고 7 월 15 일 밤에 달이 밝고 바람이 잠잠할 때 강과 호수에 띄운다. 이날 성묘를 할 때에는 자기 조상의 묘외에도 좌우에 있는 묘를 상징적으로 쓸고 인사를 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농사의 풍작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밭의 곡식들에 오색 천초각들을 매달아놓았다.

중원절의 음식 풍속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전국의 많은 곳에서 오리를 먹었다. 오리를 먹으면 평안하고 복도 많고 장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남방의 일부 지방에서 이날에 납작한 음식을 먹는데 납작한 음식을 먹으면 불운을 멀리하고 더러운 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한다.

섬북지방에서는 이날에 꽃뽕을 먹는 것으로 소문이 높다. 그들은 꽃뽕을 만들 때 그 모양에 특히 중시를 돌리는데 이상분들에게 드리는 뽕은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고 동네패들에게 주는 뽕에는 물고기를 그리며 후배들에게 주는 뽕은 다리를 굽힌 양의 모양으로 만든다고 한다.

'붉은 석류꽃 태양 따라 피어나네' 공연 할빈서



흑룡강성민족종교사무위원회에서 주최하고 할빈시민족종교사무국에서 주관한 '붉은 석류꽃 태양 따라 피어나네' 시리즈 문화홍보 활동 및 할빈시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구축 문예공연이 일전 할빈시 송화강가에 위치한 홍수방지기념탑 야외무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흑룡강성민족종교사무위원회 김은화 부주임 등 주최측 대표들과 할빈시조선민족사업촉진회 등 소수민족 민간단체 대표 등 수백명이 현장에서 정제로운 공연을 지켜보았다.

본 공연의 대부분 종목은 치치할시 매리스문화관에서 추천한 흑룡강성 여러 민족의 무용과 노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할빈시 조선족 라이라크 무용단의 무용 공연도 있었다.

특히 노래 〈길잡이〉, 〈행복의 발

걸음〉 등 무대는 조국에 대한 정감을 돋구었고 무용 〈가원〉은 중화민족의 단결과 조화를 구현하였으며 〈민족대련환〉, 〈경축〉 등 노래와 무용은 당의 령도 아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향한 새로운 장정의 길에 오른 여러 민족 군중들의 열정을 불태웠다.

이날 공연은 여러 민족 군중들에게 다채로운 시청각 향연을 선사하고 풍광의 풍부하고 찬란한 민족문화 자원을 충분히 전시하였으며 여러 민족 사이의 교류와 융합을 증진시켰다.

'붉은 석류꽃 태양 따라 피어나네' 시리즈 문화홍보 활동은 앞으로 2 개월간 진행되며 치치할, 대정, 할빈의 관련 현(시, 구)에서 잇달아 전개된다.

/ 흑룡강신문

투자족·묘족 정취 넘치는 무릉산 탁수 고진

천년의 상업도시, 유서깊은 옛 거리, 등불이 명멸하는 가옥들... 2 평방킬로미터가 채 안되는 면적에 웅기종기 모여앉은 마을은 비가 내릴 때면 강물 위에 떠오르는 수증기가 둘러싸여 흡사 '구름 위의 마을'을 연상시킨다.

잠강지역 무릉산 가운데에 위치한 중경시 탁수(濯水) 고진에는 한족뿐 아니라 투자족·묘족 등 소수민족들도 거주하고 있다. 특히 투자족의 비율은 55% 가 넘는다. 현지 민족문화중 '투자 문화의 꽃'이라 불리는 투자족 자주 견직물 '시란카푸'가 유명하다. '시란카푸' 견직 기법은 지난 5 월 처음으로 중경시 무형문화유산 및 관광진흥 융합발전 추천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검정색에 흰색, 빨간색에 초록색, 노란색에 파란색, 남실과 씨실이 교차되며 꽃이 수놓아진다. 잠강구 신진촌의 무형문화유산보호전습소에는 '시란카푸' 제작 기법을 도입한 브로치, 펜던트(吊墜), 팔찌 등 장신구가 가득하다.



▲ 투자 13 채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는 배우들

구급 무형문화유산 전승인인 로에화는 "매일 많은 관광객들이 구매하고 있다."며 "민족적 요소가 담긴 액세서리가 패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여름날 저녁 7 시가 되면 신진촌 투

자 13 채(13 채의 투자족 전통 가옥으로 구성된 마을)의 가옥원에서 공연이 시작된다. 투자족의 삶과 가족 이야기가 보여주는 이 공연은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다.

"원주민, 느린 생활 절주는 우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중경협곡성관광지관리회사 부사장 풍나미는 "공연 내용을 계속 다듬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잠강구는 지난 수년간 민족문화 위위를 기반으로 아방강 류역, 소남해 투자 마을 등 문화전시·관광레저·체험이 일체화된 2 개의 중점 투자족·묘족 민족문화벨트를 건설했다.

중경시 잠강구문화관광발전위원회 주임 방일승은 "13 채는 전형적인 투자족 전통 주거 군락이자 민족문화벨트의 주요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독특한 민족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잠강을 찾는 여행객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잠강구 A 급 관광지 입장표 구매자수(연인원)와 입장표 및 2 차 소비 수입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53%, 82.17% 증가했다.

방주임은 "민족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자원의로의 전환을 촉진해 잠강만의 매력을 알리는 데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신화넷